FAVORITE

#NCT127 #Favorite #NCT127_Favorite

1

나의 시간은 영원하다.

어쩌면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





2

무언가 시작되고 끝날 때,

나는 찰나의 시간이 지나감을 느낀다.

3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꿈을 꾼다.

꿈에는 내일이 나온다.

큰 의미는 없다.

어차피 나의 매일은 똑같이 반복된다.

4

이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던 나의 내일에

갑자기 네가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5

나의 긴 생에서

가장 특별한 찰나가 될 네가.





6

너는 누구일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7

꿈처럼 밖은 비가 많이 내렸다.

공기도 옷깃도 발걸음도

비를 머금어 무거워졌지만

나는 걸었다.

너를 만나기 위해.

8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꿈에서 그랬듯

너는 장미를 한가득 안고 있었다.



9

" 안녕하세요."

반가운 마음에 내가 먼저 인사를 했고,

" 어서오세요."

말하며 네가 웃었다.



10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나는 절대 사랑해선 안될 너를

결국 사랑하게 될 것이다.



11

"장미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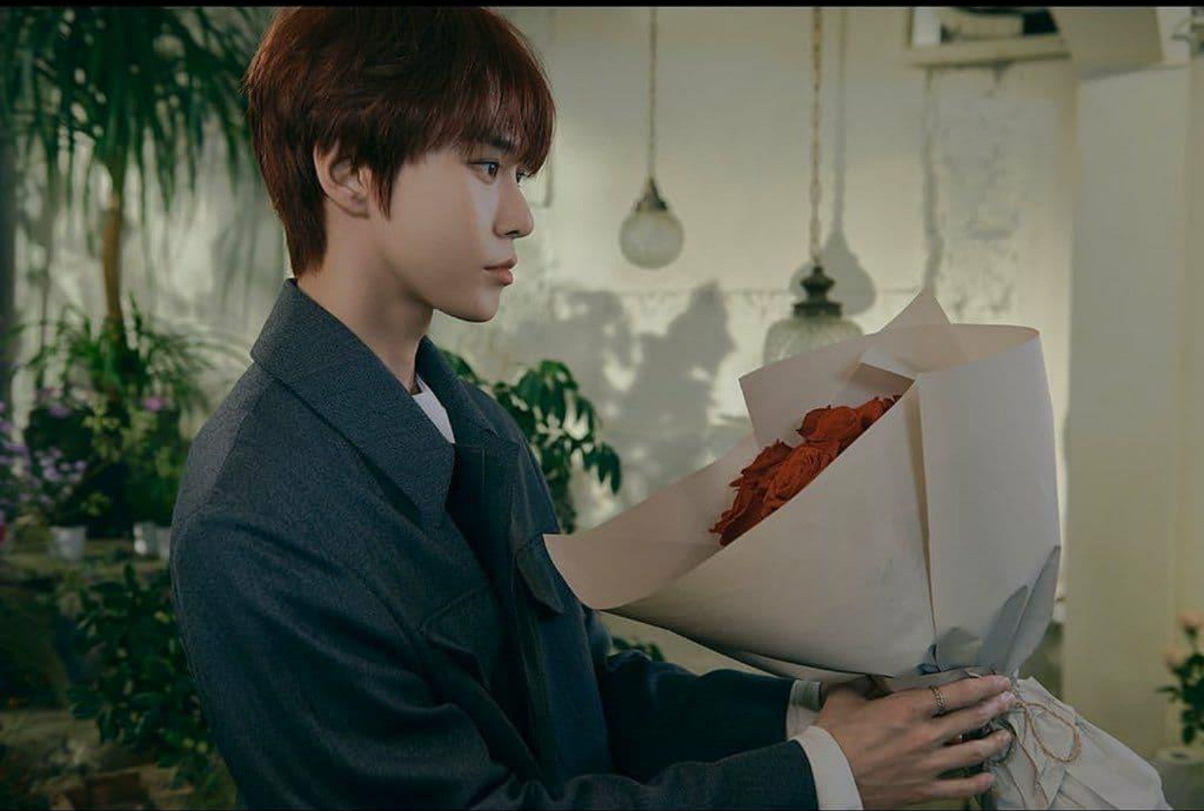
"네."

저도 좋아해요, 장미.

나는 꿈에서 들었던 너의 대답을 기다렸다.

"저도 좋아해요, 장미."





12

“조심하세요. 가시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는 미소지었다.

또 오세요. 너의 말에

또 올게요. 내가 대답했다.

내가 꿈에서 본 것은 여기까지였다.

나는 잠시 문 앞을 서성이다,

다시 뒤돌아 너에게 향했다.





13

그리고 용기 내어 장미 한 송이를 건넸다.

14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날이든 저녁에요. 만나요. 우리.”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날이든 저녁에요. 만나요, 우리.

15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지 않기 위해

내 모습은 종종 달라진다.

우리가 처음 만난 후로 내 모습은 달라졌지만

넌 꽃집에서 봤던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6

미안하지만 나는 너에게

내가 기억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쩔 수 없었다.

17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랐다.

다행히 네가 날 먼저 알아보고 다가왔다.



18

꿈에서 나는 코미디 영화를 예매했다.

"재밌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을 나오면서

네가 말했다.

거짓말. 영화를 보는 내내

네 얼굴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진심을 모를 수가 없었다.





19

"다음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나의 물음에

너는 영화관 구석에 포스터를 가리켰다.

"아."

난감한 나의 탄식과 함께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Interview With The Vampire
Blood Moon II
THEATER 2 / SEAT H13



20

저녁이 되었고 영화관으로 향했다.

나는 오늘 네가 입고 나올
흰 원피스에 어울리는
노란 장미를 준비했다.

21

우리는 네가 가리켰던 영화를 함께 보았다.

"뱀파이어가 주인공이래요. 재미있겠죠?"

너의 말에 내가 어색하게 웃었다.





22

나에게 이 영화가 재미있을 리 없었겠지만

어차피 너의 옆에 나란히 앉은 게

너무 떨려서

나는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어차피 너의 옆에 나란히 앉은 게 너무 떨려서 나는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23

너를 만나고 나는 내일을 기다리게 되었다.

꿈속에서 함께할 순간들을 보는 건

언제나 두근거렸다.

24

나는 그동안 혼자 하던 것들을

이제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노래를 듣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25

게임에서 지고 툴툴대던
너의 꿈속 모습이 떠올라

나는 일부러 실수를 했다.

나를 이기고
너는 아이처럼 웃었다.



26

"우린 생각보다 취향이 잘 맞는 것 같아."

네가 말했다.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나는 꿈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보고 왔다고.

큰 마음먹고 고백한 건데 너는 믿지 않았다.



27

"또 어떤 걸 좋아해?"

내가 너에게 물었다.

너는 여행도 좋아한다고 했다.

특히 바다의 색을 보는 걸 좋아한다고.

바다는 분명 하나인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게 신기하다고.


또 어떤 걸 좋아해?

28

너를 만난 이후로

나도 바다를 좋아하게 됐다.

내가 볼 수 있는 바다는

검은 밤바다뿐일지라도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좋다.

29

"다음에 우리 에메랄드 바다를 보러 가자."

"그래. 나중에."

내가 말했다.

30

시간이 다가옴을 느꼈다.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해야만 할 것이다.

해가 져야 너를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

네가 사랑하는 바다색을

함께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31

이렇게 소중해져 버린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런 나에 대해.



32

정적이 흘렀다.

나는 나의 정체에 대해 고백했고

너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꿈에서는 결국 끝끝내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네가 어떤 반응일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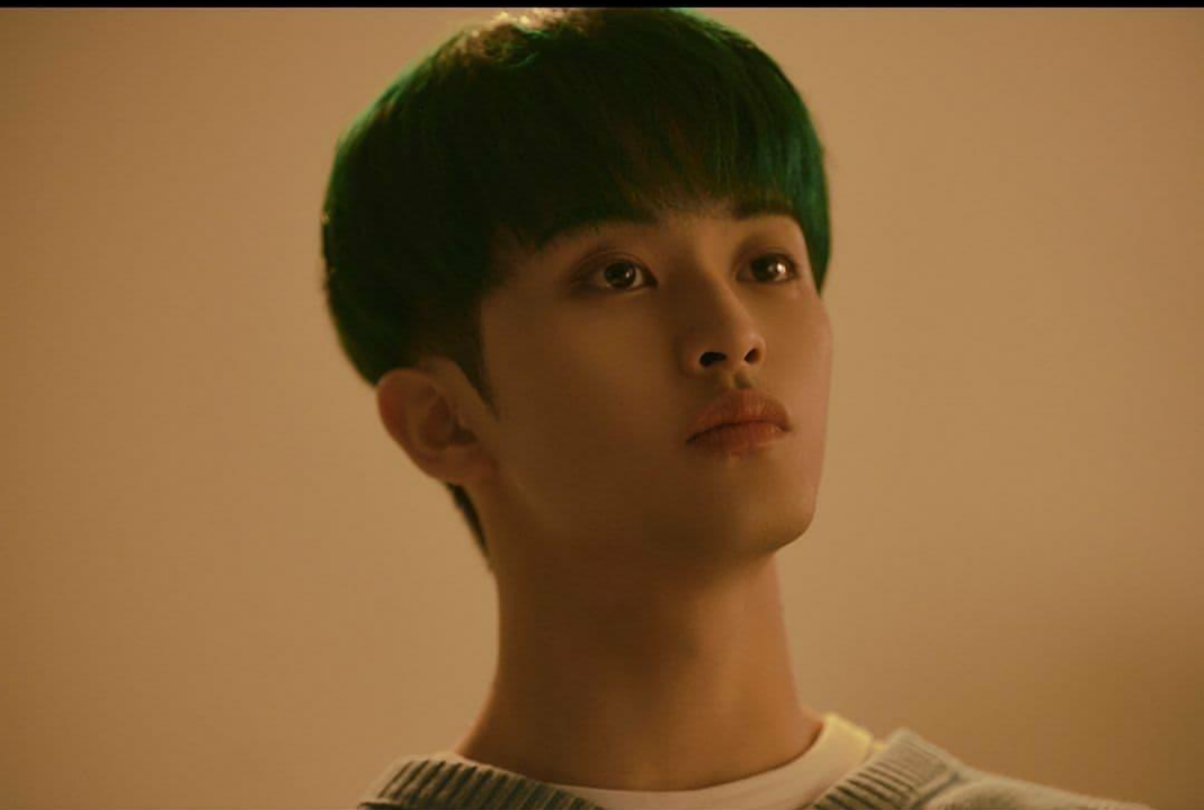
다행히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을 하거나,

듣자마자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나의 상상 속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을

모두 비껴갔다.



34

"원한다면 기억을 모두 지워줄 수도 있어."

내가 조심스레 먼저 말을 꺼냈다.

원한다면 모든 기억을 지워줄 수도 있어.

35

너는 잠시 고민하다 식탁을 내려다봤다.

"이 음식은 뭐야?"

네가 물었다.

"요리 못하잖아."

슬프게도 너는 나를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맛이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만든 서툰 요리를 네가 한입 입에 담았다.

"그건 안 되겠어." 네가 대답했다.

"이 맛없는 오므라이스를

기억에서 지우는 건

아무래도 후회가 될 것 같아."



37

너는 말없이 내가 서툴게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다.

나도 말없이 밥을 먹었다.

38

입안 한가득 음식을 넣은 서로를 보고

우리는 웃음이 터졌다.







39

아무렇지 않게 나를 받아들여주는 네가

나는 겁이 나면서도 고마웠다.





40

서로가 소중해질수록

시간은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점점 더 빠르게 흘렀다.

꿈속의 네 표정이

요즘 들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건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41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엔?
네가 혼자 남겨지잖아."

"글쎄. 그건 너무 먼 얘기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다.




곧 장마야. 우리 바다를 보러 갈까.

"곧 장마야. 우리 바다를 보러 갈까."

꿈속에서 들었던 너의 말이 나오지 않게

내가 말을 돌렸다.

"정말?"

네가 아이처럼 좋아했다.

하늘이 온종일 먹구름인 장마에는

나 역시 아주 잠시지만 낮에도

밖을 나갈 수 있다.

44

이번 장마,

우리는 함께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다.



45

"그렇게 좋아?

어차피 비가 와서 하늘도 바다도 흐릴 텐데."

잔뜩 기대하고 있는 네가 걱정되어

내가 말했다.



46

"검지 않은 바다를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너는 상상만 해도 좋은지 입꼬리가 올라갔다.
나도 따라 입꼬리가 올라갔다.





47

바다를 사랑하는 네가

난 물고기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내가 잡을 수 없는, 옆에 둘 수 없는.

48

그래서 네가 나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말을

나는 들을 자신이 없었다.

네가 이 무료하고 끝없는 시간 속에서

반쪽짜리 삶을 살 수 있을까.

난 그걸 원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지금처럼 별과 함께 자고,

좋은 꿈을 꾸고, 바다를 사랑하길 바랐다.



50

너를 바래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너는 없는데 차 안에 여전히 네가 가득했다.
너의 물건들, 너의 향기가 남아
나는 네가 금세 그리워졌다.

정말 어쩌면 좋을까.
네가 떠나고 난 다음, 나는.







51

우리가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한 날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꿈을 통해 먼저 알게 되었다.

52

수없이 반복했을

'미안해'라는 말을 전하려 했는데,

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53

나는 전하지 못한 선물만 만지작거렸다.

"미안해"

끝끝내 받은 전화 너머의

너의 목소리가 너무 아파서

나는 꿈에서 깼다.

55

나는 너에게 달려갔다.

"네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 내 옆에 있어줘."


네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56

떠나지 말고 영원히 나의 품에서 피어줘.

내가 너의 목에 펜던트를 걸었다.







57

"언제나, 영원히 네 옆에 있을게."

나의 고백에 네가 내 품에 안겨 울었다.

58

우리 이 불행에서 영원히 함께하자.

59

"사랑해".

나는 네가 혹시라도 사라지지 않게
더 꽉 안았다.

60

이제 우리의 시간은 함께 흐른다.

그렇게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다.



61

그런데 왜 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

내 꿈에 더이상 네가 나오지 않는다.





62

그런데 네가 날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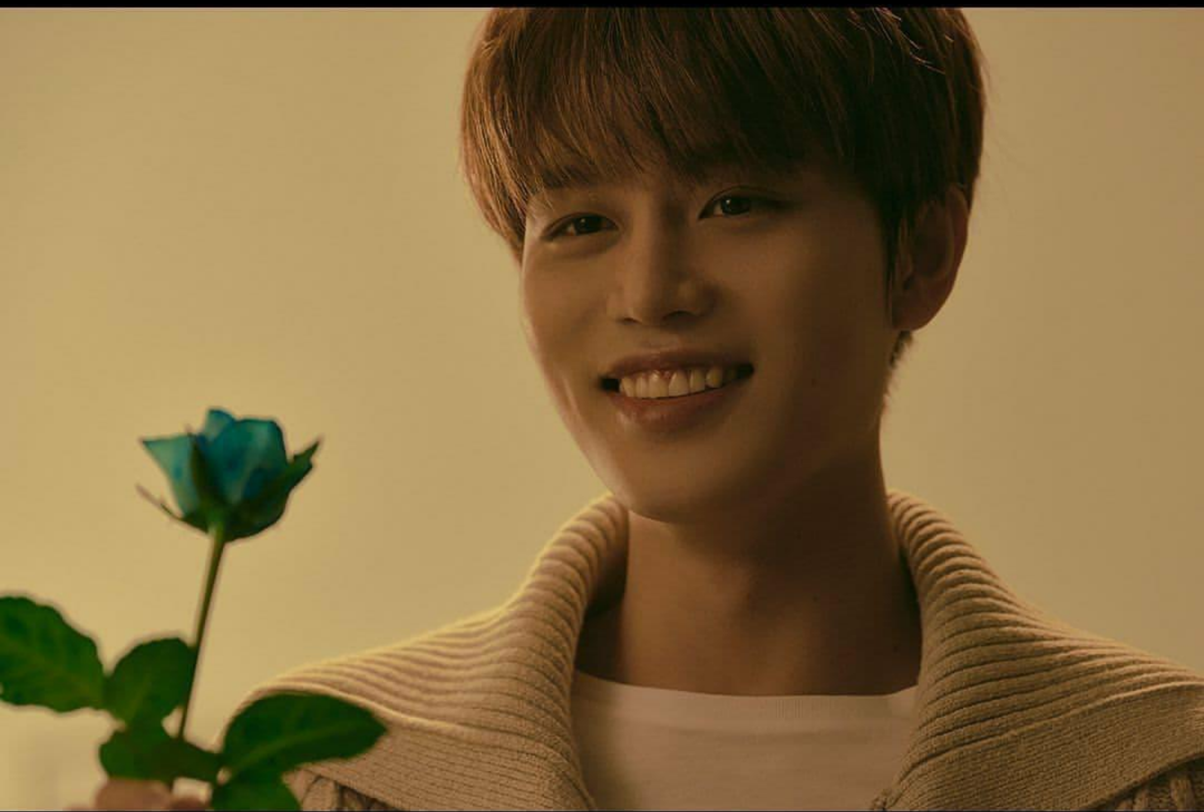
꿈에선 보지 못한 장면이었다.

63

너는 파란 장미를 건넸다.

"게임을 할까? 노래를 들을까?"

너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64

"우리 내일은 뭐 할까?"

그리고 네가 물었다.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있잖아. 너는 꿈을 꿔?

65

“있잖아. 너는 꿈을 꿔?”

내가 물었다.

“아니.”

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66

"이상해"

"뭐가?"

"네가 꼭 사라질 것만 같아."

"우린 이제 영원히 함께야.
내가 널 두고 사라질 리 없잖아."

네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이렇게 내 앞에 네가 있다.

나는 파란 장미를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68

그럼에도 악몽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꿈속에서 너는 결국 나를 떠났고

나는 꿈인 걸 알면서도

괴로움에 눈을 떴다.



69

눈을 떴을 때

네가 선물해 준 장미가 보이질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너에게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네가 날 보고 놀라 물었다.

너를 보니 마음이 놓였다.



71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72

너에게 선물한 장미도,

함께 봤던 영화도 모두.

변했다.







73

가만히 너의 펜던트를 바라봤다.

"분명 바꿨는데..."

나는 달라진 펜던트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너를 보았다.



“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너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선명했다.

75

"괜찮아."

네가 미소 지었다.

"너에게 남은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알았었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야."

"알아."

"불행 속이라도
내 옆에 영원히 두었을 거야."

"그때도 지금도 행복했어."



울음을 삼키며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 모든 게 꿈이라는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제발,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79

눈을 떴다.

곁에 너는 없었다.


네가 떠나고 나는 계속해서 꿈을 꾼다.

80

네가 떠나고 나는 계속해서 꿈을 꾼다.

꿈속에선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나는 내 모습을 바꿔도 보고

가끔은 다른 선택을 해보기도 한다.

81

어쩌면 널 더 웃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덜 울리지 않았을까,

영원히 널 내 옆에 둘 수 있지 않았을까.

노력을 해도 결국

달라지는 건 없었다.

82

네가 떠났고 우리는 멈췄다.

하지만 나는 자꾸 흐른다.

그게 날 미치게 한다.



83

나는 파편이 되어버린
우리의 지독한 운명 속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



84

그게 몇 번이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좋아져 버린 너를.

나는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85

"사랑해."

다시 눈을 감았다.

86

이제는 볼 수 없는 나의 바다,

닿을 수 없는 나의 너를 만나러 가기 위해.